
2000年度行政事務監査 企劃經濟委員會會議錄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監査機關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上溪職業專門學校·엘림職業
專門學校·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

日時 2000年6月22日(木) 午後4時
場所 企劃經濟委員會會議室

(16時 01分 監査開始)

○委員長 鄭韓植;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0년도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上溪職業專門學校, 엘림職業專門學校,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 등 4개 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감사는 地方自治法 제36조, 同法施行令 제16조 내지 제17조의10 및 서울特別市行政事務監査및調査에관한條例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인선서를 합니다. 선서에 앞서 地方自治法 제36조제5항 및 同法施行令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증한 관계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드리오니 관계자는 정확하고 성실한 증언과 의견진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는 4개 기관을 대표해서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이 하게 되겠습니다.

대상관계관은 기립하시고,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은 발언대에 나와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서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宣 誓)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宣 誓)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宣 誓)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宣 誓)

○委員長 鄭韓植;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보고는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상계직업전문학교, 엘림직업전문학교,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 순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감사 진행은 4개 기관 전체를 상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委員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먼저,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장은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존경하는 서울시의회 企劃經濟委員會 鄭韓植 위원장님, 그리고 企劃經濟委員會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校長 尹錫列입니다.

먼저, 이렇게 건강한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난 제17회 행정사무감사에 처음으로 참석하여 여러 위원님들 앞에서 전문성과 효율성, 그리고 책임성을 갖춘 운영주체로서 소임에 충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여러 위원님들께 좋으신 충고와 도움을 받고자 그간의 업무를 보고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주요업무 보고서와 행정사무감사 자

료에 담았습니다만 그간 특별히 역점을 두고 추진한 주요업무 몇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는 교내 정보화 인프라를 구축하였습니다.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개선하여 일부 실교육시간에 인터넷 활용이 가능하여졌고 학사, 구매, 급여, 인사 등 행정업무가 전산화되었으며 직원들의 정보화능력 향상교육을 실시하여 업무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둘째, 학교운영의 민주적인 운영과 참여를 위해 각종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교직원의 능동적인 참여를 증진시켰습니다.

셋째, 연구기획실을 통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특히 산업디자인 계열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일본, 중국 등 재단 산하의 교육기관과의 국제협력과 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자매결연사업이 가시화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鄭韓植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저는 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직업교육사업을 여러 위원님들 앞에 보고드리고 겸허한 자세로 지적을 받아 그 지적해 주시는 내용을 학교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사회적 열외계층과 직업능력 개발을 원하는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수요자 중심의 실천적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실시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도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
(報告)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시간상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점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립 서울종합직업전문학교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鄭韓植 委員長, 李亮漢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李亮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계직업전문학교 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안녕하십니까? 서울上溪職業專門學校 校長 高雄一입니다.

존경하는 企劃經濟委員會 鄭韓植 위원장님, 그리고 企劃經濟委員會 위원님을 모시고 저희 서울특별시립 상계직업전문학교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90년 3월 개교 이래 작년도까지 총 6,256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유능한 전문기능인 양성, 혼을 심은 장인정신, 시민의 직업안정을 목표로 하여 저소득 무기능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기 위주의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업현장이 필요로 하는 기술인력을 양성 배출함으로써 실직시민의 직업안정은 물론 국가발전, 산업발전 기회에 확신을 가지고 50여 명 교직원은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주문훈련제를 시범 실시하여 현장취업 능력배양 및 산.학 협력체제 강화를 위하여 16개 기업체와 57명의 학생을 졸업과 동시에 취업하도록 약정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인구의 변화 및 지식기반산업의 발전 등 대외여

건을 세밀히 분석 연구하여 수요자 중심의 학교운영으로 경쟁력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고용촉진 자산 및 실업자와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시민을 우선 선발하여 현재 626명을 교육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企劃經濟委員會 여러분, 우리 학교는 급속히 발전하는 산업사회에 부응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신지식 정보화산업 측정 및 중.고령자의 직업교육, 직장 적응방안을 연구 개발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그 동안 기획경제위원님들의 지도와 성원에 힘입어 상계직업전문학교는 교육과정의 혁신과 신기술 측정의 신설 및 교육장비의 현대화를 성취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상계직업전문학교 2000년도 업무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報告)

上溪職業專門學校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으로 상계직업전문학교 2000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엘림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안녕하십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 校長 徐恒植입니다.

천백만 서울특별시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

여 노심초사 애쓰시는 企劃經濟委員會 鄭韓植 위원장님, 사회를 담당하시는 李亮漢委員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00년도 업무계획을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동안 저희 엘림직업전문학교는 존경하는 企劃經濟委員會 위원님들의 많은 애정과 관심 속에 꾸준히 성장 발전해 왔음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또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따라서 본교는 산.학계가 요구하는 기술력을 주문받아 양성하는 주문훈련을 확대하고, 또한 현대사회가 요구하는 기술교육과 직업보도사업을 위해 신산업 직종개발에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企劃經濟委員會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격려와 지도편달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은 저소득시민과 미진학 청소년들에게 기술교육과 건전한 직업의식을 고취시켜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시키기 위한 중요한 사명임을 깊이 인식하고 교장 이하 전 교직은 최선을 다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면 엘림직업전문학교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報告)

엘림職業專門學校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이상 부족한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장 나오셔서 소관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안녕하십니까? 저는 市立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 校長 金武男입니다. 4월에 취임했습니다.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조금 서투르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鄭韓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학교 2000년도 주요업무 등에 관해서 보고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

(報告)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 主要業務報告

(뒤에 실음)

.....

감사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梁敬淑 委員; 먼저, 엘림職業專門學校에 대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지적을 좀 많이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9년도에 비해서 2000년도 예산이 차이가 지나치게 많다고 보여지는 부분이 업무추진

비입니다. 업무추진비가 99년에 2,000만원 정도였는데 2000년도에는 5,727만원으로 무려 287%가 늘어났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직급보조비를 1,178만원에서 3,535만원으로 300%를 늘렸는데 그 이유가 뭔지 답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원가산금이 99년도에 64만 8,000원 이었는데 2000년도에는 485만 6,000원으로 749%가 늘어났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해명을 요구합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감사자료에 나와 있다는 말씀이지요?

○梁敬淑 委員; 네, 행정사무감사 16쪽에 있고 업무보고서에는 7쪽에 있어요.

지금 IMF가 완전히 끝나지도 않았는데 엘림교사들이나 교직원들한테만 이렇게 300%씩 올리고 업무추진비 30% 가까이 올리고 왜 이렇게 하셨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준비가 덜 됐는데요. 서면으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고를.....

○梁敬淑 委員; 뭐가 준비가 덜 돼요? 16쪽에 나와 있다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16쪽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날 리가 없고 작성 과정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건비나 이런 사항은 市 지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많이 올려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委員長代理 李亮漢;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를 장난으로 하시는 것은 아니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네.

○委員長代理 李亮漢; 행정사무감사를 하러 오실 때는 답변을

할 수 있게 충분히 숙지하셔가지고 와야지 서면보고를 하실
바에야 아예 서면보고로 전부 다 해 버리고 안 와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梁敬淑 委員; 질의하는 첫번째부터 무슨 서면보고를 말씀하
시는 거예요? 일문일답 하는데 위원의 동의도 없이 누구 마
음대로 서면보고를 해요.

업무보고서 7쪽에 예산집행실적 1999년도 예산액 있잖아
요, 업무추진비하고 직급보조비?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네,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또 행정감사자료 16쪽에 2000년도 예산 집행
현황 있잖아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네.

○梁敬淑 委員; 같이 오신 분 중에서 보조해 주실 분 안 계십
니까?

○梁敬淑 委員; 지금 답변 못하면 실무자가 준비해서 이따가
답변하도록 하세요.

○委員長代理 李亮漢; 준비하는 동안에 다음 질문해 주십시
오.

○梁敬淑 委員; 지금 자료 자체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이렇게
답변하는 자세 자체가 벌써 옳지 못해요. 자세가 안 돼 있어
요. 자료 탓을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다 자료 내 놓고?

지금 서울시에서 대폭적으로 지원을 99년보다 2000년에
한 2억 3000만원 이상을 더 받아다가 기껏 교육비나 학생들
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인건비에 쓰고 경상적경비에 쓰고
직급보조비 올려주고 그런 데 다 사용하고 있어요. 반성 좀
하세요. 그 답변은 이따가 하시고.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25쪽에 공과별 서울시 및 타 시·도

학생선발 현황을 보면 99년도에는 전체 선발인원 283명 중에 타 시·도가 3명이었습니다. 1%인데 2000년의 경우는 282명 중에 48명으로 17%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물론 본위원이 작년에 서울에 사는 학생들이 대부분이라는 보고서 자체가 믿을 수 없다라는 근거를 댔었어요.

왜냐 하면 가족들은 다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학생들만 다 서울시에 주소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확인 결과 대부분이, 절대 다수가 경기도에 사는 학생들이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형식적이든 어쨌든 타 시·도가 1%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대폭적으로 17%로 늘어난 이유가 뭘니까, 갑자기?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말씀드리겠습니다.

市政開發研究院의 용역보고에 의하면 소재지가 서울시가 아닌 경기도에 있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서 京畿道에서도 받으면 좋겠다는 그런 용역보고가 나온 바가 있고, 또 이 사항은 雇傭安定課의 지시를 받아서 경기도에서 부담하는 원칙하에 서울시는 서울시 인원에 한해서만 지급하기 때문에 경기도 소재지에 있는 학생들은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서 모집한 것입니다.

○梁敬淑 委員; 경기도가 얼마 지원했습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약 2억원 정도 하기로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48명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 2억원이나 낸단 말이에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렇게 냅니다. 고용촉진 훈련 계획에 의하면 1인당 한 500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

서 정원 40명으로 했는데 나머지 탈락을 가상해서 8명을 저희들이 더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탈락을 가상한 것까지 해서 돈을 받으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아닙니다. 이 40명에 대한 예산을 받되, 중도탈락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들이 10% 내지 20%는 더 모집을 합니다.

○梁敬淑 委員; 알았습니다. 그 점은 그렇게 하고요.

또 행정사무감사 자료 55쪽에 보면 주요업체 취업내용을 보면 취업인원 73명 중에 지방에 취업한 사람 숫자가 거의 반 정도 됩니다, 36명이고.

재직졸업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몇 년 도에 졸업한 사람들이라는 것인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당장 답변할 수는 없겠는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33쪽에 보면 취업자별 근속기간 현황자료와 행정사무감사자료 페이지 55쪽을 비교하면 97년도 학생들이 대부분 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몇 개 년도가 96년이니 뒤섞여 있는데 졸업생들의 업체 취업내용을 어떻게 파악해서 자료로 만들어 놓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저희 보고자료는 대체적으로 99년도 취업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梁敬淑 委員;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졸업생들의 취업 현황이나 이런 부분을?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저희 직원들이 직접 업체에 전화도 하고 그 업체에 서신도 띄우고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취업을 시키는 방법을 묻는 게 아니고 취업을 한 학생들, 그리고 현황이나 그런 것을 알고 있어야 될 것 아

납니까? 그러면 몇 년 전 것부터 보관 관리하느냐 이말이에요. 10년 전에 취직한 사람들 것까지 다 보관하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저희들이 보통2년간 관리를 하면서 사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면 이 자료를 2년간 보관하고 있는 부분을 보강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라구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96년도에 118명이 취업했고 97년도에 79명, 98년도에 113명, 99년도에 11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연도별 졸업생이 몇 명인데 그때 당시에 취업을 한 사람들은 몇 명씩이다라는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5쪽에 보면 99년도 졸업생 234명이 취업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10명이 취업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렇게 차이가 있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괄호 안에 저희들이 표시를 했습니다만 군 입대와 진학사항을 제외한 숫자가 이렇게 됩니다.

○梁敬淑 委員; 어떻게 된다고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군 입대, 진학.

○梁敬淑 委員; 그러면 군 입대, 진학을 포함해서 업무보고서에는 234명이 취업했다고 보고한 것입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렇습니다.

○梁敬淑 委員; 알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56쪽에 취업내역 53명이 몇 년도 졸업생인지, 또 지방에 취업한 사람이 23명인데 학교에서 추천을

해서 간 것인지 어떤 과정으로 간 것인지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60쪽에 PC프로그램 구입비 780만원, 업무용승용차 구입비 1,637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99년도 전체 예산이 17억원 정도인데 이 중에서 서울시 지원이 11억원입니다. 그런데 엘림복지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얼마를 사용하고 있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약 5억 6,000만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5억 6,000만원은 주로 어디에다 쓰니까? 지금 지출현황을 보면 서울시에서 준 돈만으로도 대부분의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하고 있고.

근무자들 월급 주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리고 남는 경우는 돌려 주기도 하는데 나머지 그러면 5억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어디에다 쓰고 있어요? 자료 어디를 봐야 됩니까? 자료가 없어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 자료는 넣지 않았습시다, 법인이기 때문에.

○梁敬淑 委員; 왜 안 넣었습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시비만 가지고 했는데요. 별도로 말씀하시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즉석에서.

○梁敬淑 委員; 그러면 자료제출 하세요. 자료 가져와 보세요, 엘림에서 쓴 사용내역. 99년도 예산액 대비해서 지출현황을 자료로 가져와 보십시오.

그리고 앞으로 보고할 때 다른 직업학교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에서 지원한 돈에 대해서만 보고하지 마세요. 자체 재

단에서 어디에다 어떻게 쓰는지, 서울시가 대부분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재단 부담액과 사용내역까지 보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의회에서 판단할 때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가지고 다 운영을 하고도 모자라지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지금 법안에서 몇 억씩을 썼다라는 것이 거의 신뢰가 가지를 않아요. 왜냐 하면 근무자들에 대한 월급이라든지 급료를 다 서울시에서 나가는 것으로 지급하고 있고, 학생들을 위한 공구를 산다든지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교육비를 다 서울시에서 주는데 또 어디에 돈이 필요할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어야 그러한 불신을 불식시킬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자료로, 지금 각 직업학교 4개에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비용 외에 자체부담하고 있는 예산에 대해서 자료로 다른 위원님들한테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직업학교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고 시설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또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이런 예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단적인 예로 엘림 같은 경우에 예산의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몇 천만원 생활관이나 문을 교체한다든지 경계석을 교체한다든지 조경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예산들이 1,0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의 예산들 사용하고 있는데 낙찰예정가하고 낙찰가를 비교해 보면 10만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공개경쟁을 했다고 강조를 하겠지만 이것은 낙찰업체한테 미리 사전에 알려주고 형식만 공개경쟁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더 장비를 구입한다든지 모든 기자재를 구입한다든지 예산을 사용할 때, 특히 계약에 관한 예산을 사용할 때는 투명하게 계약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가 현장에 직접 나가서 장부를 다 확인할 수도 있어요.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할 수도 있습니다.

미리 얘기해 놓겠는데 장부정리라든지 예산집행 영수증이라든지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투명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질 좋은 장비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엘림의 경우에 18세 이하가 95명으로 전체 38%인데 생활보호대상자는 전체 학생 253명 중에 7%밖에 되지 않고 모자보호대상자는 1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나머지 234명은 모두 일반시민인데 반복되는 지적입니다만 모든 학교가 마찬가지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목적이 비진학 청소년,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시민과 실업자들을 자립시켜 주는 그러한 목적이 가장 큰데 일반시민들한테서 민들이 낸 혈세를 걷어서 배우고 싶은 사람들 배우게 해 주는, 목적에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몰랐던 시민들은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고 우연찮게 또는 엘림은 아직도 순복음교회 소식지에다 공고합니까? 학생들 모집공고 어떻게 하죠?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금년 모집공고 현황이 나와 있는데 중앙일간지, 방송국,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신문, 기타 스포츠지, 또 MBC방송 이번에는 하는 데까지 다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것은 잘 된 일입니다. 작년에 저도 많이 그 부분을 지적했는데 잘 된 일이고, 요즘에는 젊은이들이 컴퓨터를 많이 사용하고 인터넷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인터넷에 광고하는 방법도 권장하고 싶습니다, 다른 직업학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비진학 청소년들이나 또 18세 이하 학생들이 학교에서 정규교육을 받는 것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학생이 전체 학생의 38%나 와서, 생활보호대상자도 아니에요, 이 학생들은.

또 모자보호대상자 다 합해 봐야 253명 중에 생활보호대상자 18명, 모자보호대상자 1명인데 어떤 연유로,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학교를 못 간 학생들이 아니라고 보여지는데 어떤 연유로 중·고등학교 정규학교를 다녀야 되는 학생들이 이 학교에 와서 직업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동사무소를 방문하여서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하여 약 403가정에 대해서 모집홍보를 직접 서신을 발송했습니다.

그렇게 했지만 모집이 저조한 이유는 저소득자녀는 1개년 교육기간중 필요한 생활비를 충당할 수 없어서 취업을 자기들이 우선으로 하고 있어요.

둘째는 모집연령에 해당하는 생활보호대상 인원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저 소득자녀는 국가지원 대상으로서 정규학교도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규학교를 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부러 직접 동사무소에 가서 사회복지 전문요원하고 담담을 해서 직접

서신을 띄웠습니다. 이런 조건, 이런 사항, 무료교육을 시키고 기숙사 무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것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무튼 더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홍보를 더욱 철저히 강화하고 저소득시민이 입학할 수 있도록 문호를 더욱더 개방할까 합니다.

○梁敬淑 委員; 그것도 그거지만 그런 노력에 대해서는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하지도 않고 어려운 학생이라고 보여지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18세 이하의 많은 학생들이 직업학교를 찾아와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되느냐, 그것 잘 몰라서 묻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 점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직업학교를 졸업하게 되면 특별히 정규학력으로 인정도 안 되는데 가난하지도 않는 학생들이 왜 학교를 다니지 않고 이 많은 수가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느냐 이 말이에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사실은 그 애들 가정이 결손가정이 제일 많습니다. 결손가정이 많아서 초기상담을 통해서 보더라도 병환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서, 또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을 받지 못한 형편도 있고 실질적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이 상당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입니까? 다른 직업학교들도 정규학교에 다녀야 될 나이의 학생들이 많이 오죠? 그러면 대부분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많이 옵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고등학교를 중퇴를 한 아

이들입니다.

그래서 고졸 이하가 제일 많은 이유가 정규 고등학교에서 결손가정이라든지 부모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다든지 친구를 잘못 만난 비행청소년들이 학교로부터 중퇴를 당한 아이들이 저희 직업학교를 많이 찾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 위해서 저희들이 직업교육을 하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梁敬淑 委員;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엘림 교직원 현황을 보면 학생 283명에 교사가 37명입니다. 이 교사수가 적느냐 많으냐의 판단은 좀더 전문적으로 해 봐야겠지만 다른 학교에 비해서 학생수보다는 교직원수가 비율이 높아요.

그 중에서 상담교사의 경우에는 기숙사 사감교사가 2명 있고 상담교사가 3명이나 됩니다. 그에 반해서 상계직업학교는 640명에 교사가 59명, 생활지도교사 3명, 상담교사는 없습니다. 또 한남은 574명 중에 교사 51명인데 상담교사를 이렇게 5명씩 두는 이유가 뭐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 사항은 학교별로 운영을 하는데 자동차공과면 자동차공과, 가구공과면 가구공과 담당 상담교사가 있는데 공과로 편입을 해서 운영을 하니까 상담교사가 없다는 식이지 똑같은 상담교사가 다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가 적든 많든 남녀가 있기 때문에 여자사감이 있어야 되고 남자사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숫자는 많고 적음에 불문하고 뭇은 다 차지해야 됩니다.

○梁敬淑 委員; 기숙사 상담교사 말고 그냥 일반상담교사도 3명 있잖아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런 사항은 다른 학교는 그

학과에다 소속을 해 버렸으니까 상담교사가 있는 것으로 표시만 안한 것 뿐입니다.

○梁敬淑 委員; 그래요? 다른 학교 어떠세요? 다른 학교는 생활지도과라 해서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로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상담을 해 주면 그 교과를 가르치는 선생이 상담도 해 주면서 직업에 대한 중간역할도 해 주면 되는 것이지 별도의 상담교사를 이렇게 5명씩, 다른 공부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업무역할 내에서는. 그냥 상담만 5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실제로 이 상담교사들 5명 근무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 근무합니까? 5명 모두 근무합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이들이 상담도 상담이지만 생활지도교사입니다.

○梁敬淑 委員; 다른 학교에 비해서 상담하는 선생들이 많은 비율로 보면 상담하는 교사가 많다고 해서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무튼 조금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원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사나 교직원들의 인원을 적정인력에 대한 산출을 다시 한 번 학교차원에서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과연 이 학생수에 대비해서 교직원과 교사는 몇 명 있어야 되고 상담하는 사람은 몇 명이 있는 것이 적정하냐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학교 자체내의 중간평가를 해서 의회에 보고하시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그 자체도 보고해 주세요.

그리고 지금 엘림의 제일 커다란 문제는 99년도 민간이전비 10억 6,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인건비하고 업무추진비,

또 복리후생비, 보상금, 그러니까 10억 6,600만원의 예산 중에 교직원들한테 나가는 돈이 8억 4,8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80%가 교직원들한테 나가고 학생들을 위해서 순수하게 쓰는 비용은 2억 1,800만원입니다. 20%가 안 돼요.

그러면 학교의 적정인원을 다시 재산출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을 위한 학교가 아니고 교직원들을 위한 학교예요. 거의 80%를 교직원들이 다 쓰고 있어요, 돈을.

그러니까 봉급이 적정한가, 또 교직원수가 적정한가, 교직원들의 역할이 적정한가에 대한 그야말로 업무를 재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을 위해서 시민들이 돈을 이쪽에 10억 이상씩을 매년 주는 것은 저소득층과 취지에 맞게끔 학교를 운영하고 실질적 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가게끔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지, 특히 순복음교회가 운영하는 엘림은 거의 80% 이상 교직원들이 순복음교회 교인들인데 그 사람들 취직시키고 그 사람들 운영해 나가라고 시민들이 세금 주는 것 아닙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인식하고 엘림직업학교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용역이라도 주어서 받아서 의회에 보고하고 서울시에도 보고해서 재조정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제가 엘림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지적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李亮漢 幹事, 張夏雲 幹事와 司會交代)

○委員長代理 張夏雲; 趙相勳 委員님 질의해 주세요.

○趙相勳 委員; 趙相勳 委員입니다.

저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에서 나온 99년

도 결산서에 보니까 직책급, 시책추진비, 기관운영일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2000년에 들어와서 상당히 많이 높아졌어요.

높아진 정도야 다른 직업전문학교하고 비슷한 수준인데 작년 99년도에는 아예 예산책정을 적게 해서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금년에 현실화하면서 늘어난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네요.

그리고 답변하시는 분은 속기를 위해서라도 이름을 좀 얘기를 해 주시든가 교장 선생님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엘림職業專門學校 訓練部長 韓喆洙; 訓練部長 韓喆洙입니다.

저희가 99년도에 예산을 받을 당시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저희들한테 100%를 지급해 주지 않았습니다. 전년도 서울시 학생 비율로 해서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67%의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런 기관운영비라든지 업무추진비를 최소화 하고 나머지 부분에 비중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랬는데 2000년도 들어서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현실화돼서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700만원이라는 업무추진비를 늘렸지만 이것은 저희 학교만 이렇게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교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도 작게 편성돼 있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이 편성할 때는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100% 받지 못했기 때문에 축소해서 편성을 했던 것이고, 올해는 어느 정도 현실화시킨 내용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알겠습니다.

어쨌든 엘림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梁敬淑委員도 여러 번 얘기를 하시는데 재단이 갖고 있는 땅을 기부채납을 하고, 또 시비로 건물을 지었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법인에서 지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것도 법인에서 지었습니까? 땅만 내 놓은 것 아니었습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땅만 市에서 20억원을 주고 사고요, 법인은 한 150억원을 들여서 지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지금 참 묘하게 얽혀가지고 아직도 서울시 예산지원을 받는데 뭔가 근본적인 방법을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기도 학생들을 받고 경기도에서 받는 지원금이 있으면 경기도의회에도 가서 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보고해야 됩니다.

○趙相勳 委員; 뭔가 좀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리고 또 梁委員님이 지적하셨던 재단 전입금 문제요, 이것이 전혀 표현이 돼 있질 않습니다.

서울시 입장에서는 교육재단이 함께 직업전문학교를 운영하는 자체가 봉사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재단이 뜻있는 일을 하겠다라는 것에 동의를 하고, 또 재단에서 출연한다는 점에 동의를 해서 일단은 이 사업을 위탁하고 지원을 하는 것인만큼 재단 전입금 부분도 굉장히 투명하게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는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명목으로 사용되었는지 그것도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직업전문학교 감사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인 교육내용이나 또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이나 학생들 지도나 이런 것들은 일반적인 업무감사에서도 할 수가 있겠지만 행정사무감사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결국 市費 집행을 제대로 투명하게 했는지 이 부분이 제일 큰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여쭙어보겠습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에서는 작년에 워크스테이션을 포함해서 그래픽 전용 시설장비들을 구입하면서 한국엘렉스컴퓨터에 수의계약으로 2억 5,100만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됐었습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趙相勳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7월경에 장비구입 집행이 되었던 건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시각디자인과, 그리고 전자출판과에서 사용되는 장비로서 매킨토시 컴퓨터입니다.

그런데 이 미국 애플사에서 우리 한국에 있는 한국엘렉스컴퓨터라는 회사와 독점판매 계약을 맺은 품목입니다.

그것이 파악이 되어서 처음에 집행하는데 다소 염려를 많이 했고, 저희들도 심사숙고한 끝에 國家를당사자로하는契約에 관한法律 제7조, 그리고 同法施行令 제26조제4항 아목, 자목에 의한 수의계약 항목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 내용이 뭐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생산자가 1인이거나 독점 판매 품목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요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을 저희들이 몇 차례 심사숙고한 결과 수의계약 품목으로 판정을

○趙相勳 委員; 고민을 하셨다면 저도 이해는 하겠는데요. 보

면 매킨토시라는, 그래픽 전용 컴퓨터도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킨토시라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컴퓨터 같은 경우는 그래픽 전용 컴퓨터라고 할 수 있지만 워크스테이션은 굳이 매킨토시가 아니어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레이저 프린터나 잉크젯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 레코더 이런 것들은 엘렉스하고 상관 없는 제품도 많이 들어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라면 사실 매킨토시가 엘렉스컴퓨터에서 제작한 기종이니까 동의는 할 수 있겠지만 전체 물량 중에 한국엘렉스컴퓨터의 제품 비중이 몇 %나 됩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독점품목을 저희들이 나중에 계산을 해 보니까 69.9%입니다. 그러니까 약 70% 정도가 독점품목 이었고, 나머지 상당수의 소프트웨어들은 꼭 독점품목은 아니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디지털카메라, 또 워크스테이션, 프린터, 모니터, 스캐너도 사실은 엘렉스컴퓨터에서 다 생산되는 제품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67% 정도가 엘렉스 제품입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전체 금액으로 2억 5,000만원에 대한 독점품목과 비독점품목을 분류해 봤을 때 69.9%가 독점품목 금액이었고, 나머지 30% 정도가 비독점품목 금액이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상당수의 비독점품목이 포함돼 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도 이것을 추진하면서 금액이 크고, 그리고 심사숙고한 결과 독점품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구입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열악합니다, 조건을 논하는데. 쉽

게 말씀을 드리면 흥정을 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해당과 선생님들, 그리고 구매 담당자와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이런 기타 독점품목이 아닌 품목까지를 그 회사에서 함께 다루어 준다면 독점품목 이외의 것들은 사실 거의 그 회사의 구입가격으로 제공을 하겠다라는 좋은 조건을 수차례 확인을 하고 검증을 거쳐서 포함을 했는데, 그것을 꼭 빼야 된다는 그런 쪽으로는 저희들이 솔직히 고려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차후로는 이런 수의계약 기회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들을 세세히 분류를 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사실은 계약이란 게 상당히 어려운 작업이긴 한데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수의계약도 해야지요. 수의계약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하여튼 제 느낌에는 쉽게 이해되지 않았고, 아마 한국엘렉스쪽이 자체적으로 구비를 해서 다 주변기기까지 갖고 있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런 점이 의문이 나서 그랬고, 그 내용은 사양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스캐너는 어떤 사양이고 뭐는 어떤 사양이고 이런 것을 한번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계약과 관련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調達廳 구매도 좀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調達廳 구매가 6월에 신청을 했는데 11월에 들어오고 그랬었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그렇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런 사안도 하나 있던데 調達廳 구매가 모두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대신 공정한 경쟁을 붙여주

는 것은 필요합니다.

지금 대부분 자료 제출하신 분들이 사실은 저희가 현장에 가서 확인을 안해서 그렇지 경쟁입찰, 타 견적 비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100만원 미만 또는 2,300만원 미만의 소액이라면 저희는 수의계약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경쟁은 붙여 주셔야 되고요. 경쟁을 할 때는 공개입찰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타 견적 비교라고 했던 것은 대부분 공개입찰이라기 보다는 몇몇 업체를 대상으로 견적을 제출받아서 임의로 결정하는 방식인데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調達廳 계약도 사실상 보면 수의계약 비슷하게 결과가 진행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조달계약 하면서 조달수수료 물고 기간도 오래 걸리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요새는 입찰제도나 정보가 모두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관련 정보지도 많고 또 자체 인터넷에도 올리고 서울시보나 이런 데 요청을 하면 다 공고를 해 줍니다.

그리고 요새 구청 같은 경우는 500만원 이상만 돼도 입찰로 해 버려요, 번거롭더라도 .

어쨌든 관공서 같은 엄격함은 갖지 않으시더라도 최소한 1,000만원 이상 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타 견적 비교라든가 그런 것을 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입찰을 하시고 그 근거자료를 반드시 첨부해 두시는 것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남도 한양컴퓨터와 관련해서 경쟁입찰이라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경쟁입찰로 보기에 1년에 3건이나 한양컴퓨터로 가

기는 쉽질 않거든요, 한 회사로.

금액을 합산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사실은 117페이지 한번 보시면 漢南職業專門學校에서 1번부터 33번까지가 한양컴퓨터에서 모두 입찰을 봤고요.

경쟁입찰로 했고, 금액도 제가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습니다. 금액이 한 6,000~7,000만원 되는 것 같고, 그 뒤에도 노동부기준 소프트웨어 30점 수의계약인데 이것이 아마 원래 하드웨어가 들어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고, 뒤에 보면 또 약 5,000만원 정도 한양컴퓨터 경쟁입찰이 돼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기에는 경쟁입찰이라고 할 때 이것이 공개경쟁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몇 번 발주되지 않는 컴퓨터 관련시설장비, 소프트웨어 구매에 있어서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이렇게 낙찰되는 경우가 없단 말입니다. 안 그러세요?

○漢南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趙相勳 委員님께서 지적하신 공정하게 경쟁입찰로 해서 모두 구매를 하라는 그런 말씀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컴퓨터의 경우는 입찰공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또 계속 거래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趙相勳 委員; 관련업자들이 보면 아주 야단날 일입니다. 정말 수의계약 요건도 아니고 6,000만원, 5,000만원 이런 금액들이 경쟁입찰이라는 이름으로 한 회사로 간다는 것은 별로, 저도 보지를 못했던 일이거든요.

하여튼 그런 점은 분명히 지적을 드리고 싶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吳世根 委員님 질의해 주십시오.

○吳世根 委員; 吳世根 委員입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는 99학년도 취업실태는 어떻게 되는가, 구체적으로 운영과 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수료생들의 사후지도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른 직업전문학교는 모두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만 생활관을 운영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생활관이 필요가 없다면 무슨 다른 대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吳世根 委員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시에 한 세 가지의 질문을 해 주셔서 제가 준비를 하는데 머뭇거림이 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 99학년도 취업실태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사후지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학년도 취업실태는 주요업무 보고서 6쪽에 나와 있는 부분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간단하게 하세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네, 주 대상인 1.2학년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년제 과정은 한 과가 있습니다, 시각디자인과. 시각디자인과는 거의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취업된 96.2%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비취업 대상을 제외한 대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년 과정은 98.8%로 역시 대학진학, 그리고 군 입

대 등 비취업 대상을 제외한 취업 희망자들은 거의 100% 취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부 과에서는 구인업체가 남을 정도이고, 이미 수료한 수료생을 찾아서 취업을 시키고 있는 과도 여러 과가 있습니다. 100% 취업을 보이고 있는 부분들은 한 6개과가 그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료생들의 사후지도는 공과 교사와 취업 담당자가 직접 연 두 차례에 걸쳐서 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문계획은 일주일 전에 서면으로 업체 관리자와 수료생들에게 서신으로 발송해서 알려주고, 그리고 그 업체 방문시에 업체의 현황, 그리고 취업생들의 근무 실태, 그리고 근무 조건, 그리고 복지관계, 직업전망 등을 중점적으로 파악합니다.

파악하는 방법은 사후지도 조사표와 산업체 카드를 작성하여 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생들의 이직, 전직을 파악해서 재취업을 위한 상담 및 취업알선을 통하여 직장생활 안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사후지도는 제1차에 6월 4일부터 30일까지 97개 업체, 그리고 제2차에 7월 8일부터 20일까지 27개 업체를 방문해서 사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질문으로 기억합니다. 저희 학교가 생활관을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1996년도에 지금 있는 생활관을 안전점검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안전점검은 어디에서 받았습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어서

말렸고, 안전점검 책자가 市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르면 현재 상태로는 주거환경으로 적합하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전면보수 내지는 재건축을 해야 된다는 판단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 오래된 건물을 개·보수 내지 증축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신축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더불어서 현재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의 여러 가지 공과 교육실습장이 부족한 현황에 비추어서 제3교육관과 함께 연관지어서 생활관을 건립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현 건물은 도저히 노후돼 가지고 생활관으로 사용할 수가 없고, 거기에서 기거하기가 어렵다 그 말씀이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그렇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러면 서울시 예산은 얼마나 지원됩니까? 내가 묻는 것만 얘기하세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생활관 지원은 없습니다.

○吳世根 委員; 전체 학교 운영하는데 지원이 얼마예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당해연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吳世根 委員; 그렇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2000년도에 27억 7,000만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계약은 몇 년 계약이에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3년계약 입니다.

○吳世根 委員; 지금 몇 년차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1년 반 돼 가고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제가 묻는 이유는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나 국가 감사기관에서 감사를 받았습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지금 작년도 3월부터 본 재단이 운영을 시작해서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吳世根 委員; 아니,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 외에 서울시 감사관실이나 국가기관인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느냐 이 얘기에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雇傭安定課에서 하는 행정지도 감사를 받았고, 작년 3월에 시작하면서 5월경에 자체 감사를 실시해서 장기발전 계획이나 시설보완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그러면 작년도에 서울시 예산 20억원을 주었다 그 얘기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올해 예산이 그렇습니다.

○吳世根 委員; 작년에는 안 주었습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작년에는 본 재단이 운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예산책정이 되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귀 학교만 지금 문제가 돼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운영하는 학교가 문제가 많아요.

사실은 서울시가 감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서울시민이 낸 혈세를 가지고 1년 예산을 약 20억원, 11억원, 보니까 많아요. 그런데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를 해야 되는데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사관실에 본위원이 건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자체에서 조달한 금액이면 몰라도 서울시가 예산을 준 것

에 대해서는 당연히 감사를 해야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럴 의무가 있고, 저희들도 수감을 받을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吳世根 委員; 이상 끝내고, 上溪職業專門學校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上溪職業專門學校의 99년도 및 2000년도 서울시 예산 지원액과 법인부담 예산액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체예산 대비 서울시 지원액 비율은 얼마나 되는가, 99년도 취업대상자 중 사유별 내용에 군 입대가 많은데 이들이 직업훈련을 받은 후 취업을 못하고 입대하게 되면 제대 후 이들에 대한 사후방안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답변해 주세요.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吳世根 委員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이 29억원인데 서울시가 전액 100%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재단에서는 부담한 것이 없습니다.

두번째, 말씀하신 군 입대 대상자에 대해서는 현재 군 입대 인원이 99년도 수료생 중에서 66명이 군 입대 인원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군 입대를 하게 되면 취업을 못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제대한 후에.....

○吳世根 委員; 서울시가 29억원이고 자체 지원금은 얼마나 됩니까?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없습니다.

○吳世根 委員; 답변 간단하게 하세요.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군 입대를 했다가 돌아오게 되면 그 사람들을 다시 정리를 해가지고 사후면담을 해서 이 사람들로 하여금 취업을 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 吳世根 委員; 그러면 지금 29억원을 언제 받은 것입니까?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2000년도 예산입니다.
- 吳世根 委員; 작년에는 직접 운영을 안했습니까?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작년에도 받았습니다.
- 吳世根 委員; 작년에는 얼마 받았어요?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작년도에 28억원을 받았습니
다.
- 吳世根 委員; 작년에 28억원, 올해 29억원. 그러면 자체에
서 서울시가 지원해 준 예산을 정당하게 100% 학교를 운영
하는데 미스나 아무런 오점이 없습니까?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100%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
니다만 하느라고 노력은 했습니다.
- 吳世根 委員; 금년 연말 회계결산도 있고 하니까 본위원이
앞으로 챙길 것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감사관실에서 감사해야
돼요, 당연히. 그것은 서울시 감사관실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감사기관에서 하는 것보다는 서울시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앞으로 결산회계 관계가 연말에 있으니까
충분한 대비를 해 놓으세요.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알겠습니다.
- 吳世根 委員; 100% 다 아무 하자가 없다고 하면 모르겠는
데 미스가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비
를 해 주시고, 잘 운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알겠습니다.
- 吳世根 委員; 그리고 엘림職業專門學校 운영 및 실적에 대
해서 묻겠습니다.

시설현황에 관련하여 제가 몇 가지 묻겠어요. 엘림職業專門
學校는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운영 공과가 비교적 적고, 훈련

인원도 상대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설이나 건물면적 등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고 현대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엘림복지타운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요시설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장학제도와 그 소요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 계획에 의하면 엘림職業專門學校는 특별장학제도로서 밀알상과 근로장학금 제도라는 독특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밀알상과 근로장학금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과 수혜대상은 어떻게 되며, 어떤 방식으로 선발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받은 혜택은 얼마나 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어떻게 충당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세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吳世根 委員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설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본관동에 세미나실, 전시실, 강의실, 회의실, 사무실, 도서실, 컴퓨터실, 전산건축과 실습 및 강의실이 있고요.

○吳世根 委員; 전체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전체 면적은 대지는 한 1만 7,703평쯤 되고요, 건물은 6,744평이 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대지가 몇 평이에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1만 7,703평입니다.

○吳世根 委員; 답변하세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실습동 4개 공과 실습장 및 강의실이 있고 생활관, 남녀기숙사가 있으며 후생관, 식당, 매점, 탁구장이 있고 강당, 다목적강당으로 사용되며 운동장,

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학금제도와 그 소요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밑알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교 운영규정 제31조에 의해서 품행이 바르고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여 모든 일에 선행하는 학생들에게 개인상벌 기록카드와 사회봉사카드에 매월 활동사항을 교사들이 기록해서 선발합니다.

수혜인원은 90년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 267명이며, 소요예산은 법인예산으로 매월 1인당 3만원씩 지급했습니다.

근로장학생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불우학생 및 결손학생,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들에게 본교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선발합니다.

수혜인원은 99년부터 2000년 6월 현재까지 54명이며, 금년도부터는 매월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소요예산은 100% 법인예산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吳世根 委員; 서울시 예산은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서울시 예산은 없고, 우리 자체 법인예산으로 100% 충당해 주었습니다.

○吳世根 委員; 건물하고 대지는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고,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건물은 당초 구입할 때 서울시가 20억원을 들여서 구입했고 건물은 저희 법인에서 150억 원을 들여서 착공을 해서 서울시에 기부채납해서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됐습니다.

그리고 한남직업학교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묻

겠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경우 99년도 예산집행 결산내역을 보면 총예산 22억 5,800만원 중 21억 3,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700만원 이 잔액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번째, 정부에서 산업현장에서 노사 쌍방의 이해가 일치하고 화합 협력하는 신노사문화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에서는 노사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00년도 연령별 현황에서 10대, 20대, 30대 이상의 비율이 각각 1/3씩인데 연령별 차이로 인하여 교육의 어려운 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한, 학력차에서 오는 문제점과 해결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 근로자 직업훈련촉진기본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고용촉진 훈련대상자는 어떤 절차로 입학이 가능한지 답변해 주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체 인원 574명 중 몇 %에 해당하며 그에 따른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한남여자직업전문학교의 정보처리과가 다른 학교와 달리 야간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는 뭔지 답변해 주세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위원님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것 차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吳世根 委員; 99년도 예산집행 내역부터 해 주세요. 간단하잖아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전체 예산이 22억 5,800

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미집행 남은 것이 1억 2,7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인건비에서 약 5,000여 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정원보다 3명 정도를 작년 평균으로 해서 덜 사람을 썼습니다. 그래서 인건비에서.....

○吳世根 委員; 미집행입니까, 인건비 5,000만원이?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네, 그래서 남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영비에서 저희들이 절감 내지는 불용액이 생겨서 1억 2,7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을 市에 환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0년도 예산.....

○吳世根 委員; 아니, 틀리는데요. 1억 2,000만원이 운영비에서 미집행이 되어 있고 인건비에서 5,000만원이 미집행이 되었다고 지금 답변하셨죠. 얼마 인건비에서 미집행입니까? 1억 2,7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인데 거기에 운영비하고 인건비 미집행하고 하면 이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인건비에서 5,600만원이고 관서운영비에서 800만원, 경상적경비 4,000만원 정도, 교육훈련비에서 1,800만원을 절감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민간이전비에서 1억 2,300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서 약 500만원 해서 1억 2,700만원 정도를 저희들이 예산집행 결산한 결과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산업 노사관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노조가 없습니다. 노사가 없는데 저희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열린 대화의 광장이라고 해서 전 직원들이 모여서 학교의 방침이라든지 또 밑의 의견이라든지 그것을 수렴하는 대화의 광장을 30분 내지 40분 정도 갖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교사회는 있지만 지금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할 필요성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화가 잘 되고 있고, 또 저도 대화를 수렴하고 공개적으로 모든 것을 투명하게 해서 노사는 앞으로 노사협회의 정신을 살려서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학생들을 보게 되면 15세부터 20대가 1/3, 또 10대가 1/3, 또 30대 이후가 야간이 많기 때문에 30대를 그 정도 분포로 574명이 금년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차에 따라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실기 위주로 저희들이 공부를 가르치기 때문에 별 그것은 없습니다만 특히 자격이라든지 그런 면에서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공부하는데는 조금 주저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력차에서 대학 졸업자, 전문학교 졸업자 이상이 22.8%가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데 그 사람들은 실기중심이기 때문에 공부 가르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르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은 빨리 수료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코스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주간에는 1년짜리가 있고 야간에는 6개월짜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짜리 경우는 마쳤을 경우에 조기 수료 해서 취업을 당기는 방법도 한번 雇傭安定課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다.....

○吳世根 委員; 취업률은 몇 %나 됩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단순한 취업 해서는 574

명, 작년에 855명이 수료를 했는데 작년에 538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취업률은 63%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울에서도 얘기하다시피 비취업 대상인원 209명을 빼게 되면 646명에 대해서 538명은 83%에 대한 취업률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취업률 계산할 때 실질적으로 취업의사가 있고 취업이 가능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당히 뉘앙스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면에서 저희들도 관리하는데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촉진법에 의해서 고용촉진대상자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대상되신 분들은 무조건 입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574명 중에서 33명이고, 또 그 중에서 4명 정도는 중도탈락을 해서 29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이라든지 동사무소 이렇게 해서 그런 분들은 될 수 있으면 많이 보내 주십사 하고 얘기를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것을 계속할 생각입니다.

○吳世根 委員; 문제점을 어떻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문제점은 그런 분들이 직장생활이 어렵고 그러니까 바로 미래를 위해서는 훈련을 받는 것이 좋지만 생계가 불안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분들의 관리가 어렵습니다.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123명이 들어와서 약 34명 정도가 중도 탈락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정보처리과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정보처리과는 다른 학교는 없는데 저희들이 야간만 있습니다.

정보처리라는 것이 요즘은 상식이 되어서 그것 가지고는 취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모든 야간·주간 공과를 포함해서

교양 56시간 정도를 모든 학생에게 배정을 해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정보처리 기초능력은 우리 수료생은 전부 가지고 졸업을 해라 그렇게 하되, 내년에 우리가 새로운 정보사회 또 지식사회에서 저희들이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것이 신직종 프로그램으로 해서 애니메이션하고 멀티미디어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市하고 또 전문기관하고 같이 연구를 거쳐야 되겠습니다. 그때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할 때 정보처리과는 완전히 없애고 교양과목으로만 둘 생각으로 있습니다.

○吳世根 委員; 한남직업전문학교 교장이라고 칭합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네.

○吳世根 委員; 몇 년째 합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금년 4월에 취임했습니다.

○吳世根 委員; 글썄,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내가 못 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앞으로 하나의 의혹도 없이 깨끗하게 투명하게 잘 운영하기를 부탁드립니다.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네, 그렇게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吳世根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다음 黃好淳 委員님 질의하십시오.

○黃好淳 委員; 黃好淳 委員입니다.

서울종합직업학교, 그리고 한남직업학교, 상계직업학교, 엘림직업학교, 지금 서울시 예산 받고 있죠? 서울시 예산으로 운영하죠?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네, 그렇습니다.

○黃好淳 委員; 그런데 감사를 안 받으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저희들이 雇傭安定課 감사를 주기적으로 받고, 이번 7월 4일부터 감사를 받습니다.

○黃好淳 委員; 서울시 감사 받으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네, 받습니다.

○黃好淳 委員; 서울시 감사실 감사를 받느냐 이거예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만.....

○黃好淳 委員; 감사 안 받죠? 회계감사는 결과적으로 안 받고 업무감사도 안 받고. 받으니까, 안 받으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받는 것을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태 감사를 시행한 적이 없습니다.

○黃好淳 委員; 편하게 보내셨네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제가 있는 목적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또 감사과 감사도 받았습니다, 문제가 있는 일에 한해서.

○黃好淳 委員; 그런데 엘림직업학교에서는 자료에 보니까 엘림직업전문학교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특별히 그 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인 감사가 아니고 시설물을 잘 쓰고 있는지 감사도 한 번 했고, 또 목적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상당히 오래되어서 3년 전인가 받았고요. 연도는 제가 기억 못합니다만 분명히 받았습니다.

○黃好淳 委員; 알았습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엘림직업전문학교 徐校長님한테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교

육생 수용인원이 최대 얼마나 됩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현재 282명을 모집해서 253명 정도 수용하고 있고, 원래 정원은 300명으로 놓고 있는데 시설은 충분합니다.

○黃好淳 委員;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는데 시설에 비해서 교육생이 적는데 우리 교장께서 홍보가 부족해서 훈련생이 안 온 것 아닙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 홍보는 각 중앙지에 전부 냈고 MBC, 교통방송.....

○黃好淳 委員; 자료에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보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거 자료가 있습니다.

○黃好淳 委員; 제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이것이 경기도에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2가지가 있습니다. 약간 교통 관계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직종이 좋은 것은 인기가 많아서 많이 오고, 예를 들어서 섬유공예과 같은 경우는 사양산업이 되고 선호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직종이 좋은 것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양산업이 있는 과가 있어서 많지를 앓고 나머지는 다 초과되고 있습니다.

○黃好淳 委員; 이것은 정원개념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인기쪽으로 학생을 더 많이 모집하면 될 것 아닙니까, 커트시켜서 안할 것이 아니라?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그것도 서울시의 승인을 얻어서 저희들이 인터넷검색과나 요새 말하는 서비스과, 제빵조리과 정도를 협의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모집할 생각이 있습

니다.

○黃好淳 委員; 그리고 각 직업학교 공히 마찬가지인데 아까 얘기대로 감사를 받지 않거나 이러기 때문에 교직원들이 어떤 사직이 됐을 때, 또는 비리가 있어서 그만둔다든지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네요. 그렇게 지적이 돼서 그만둔 경우는 별로 없겠네. 그렇죠?

본인들 희망에 의해서 교직원들 사직하고 그러니까? 다시 채용하고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전례가 없어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비리 가지고 해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黃好淳 委員; 없어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럴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그런 감시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을까, 나는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관리를 잘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黃好淳 委員; 잘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교원을 채용할 때 어떻게 해요? 공개채용합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저희들 예로 하나 정보처리과 선생님을 모집할 때 인터넷이든지 저희들이 공개모집한다고 홍보를 합니다.

홍보를 해서 인터넷 접수를 받든지 해서 저희들이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면접을 하고 여러 가지 해서 그 중에서 적정하다고 된 사람들을 웨이팅 리스트를 만들어서, 왜냐 하면 저희들이 쓰고 싶어도 그 사람들이 급여가 안 맞아서 원치 않을 때는 우리가 채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에는 웨이팅을 두어서 1번이 안 되면 2번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黃好淳 委員; 그래도 우수한 교수들이 들어옵니까?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대체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우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黃好淳 委員; 엘림 徐校長님한테 제가 다시 묻겠는데요.

경기도에 있는 것보다 지금 엘림 현재 있는 데는 주거지로서 상당히 토지값이 비싼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서울시에서 거기까지 서울시민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는데 교통편이라든가 이용률이 적다고 보면 오히려 그것을 처분해서 서울쪽으로 오면 어떻습니까?

특히, 금천 같은 데는 공단입니다. 2공단 3공단 1공단 해서 상당히 그런 직업적으로 볼 때는 필요한 지역인데 그런 전문 인력이 없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그 땅을 팔고 금천쪽에 학교를 세우면 엄청나게 큰 학교로 좋은 시설도 교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습니까? 공단지역으로. 유일하게 서울에서 공단은 그것 하나입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규모가 방대하고 그렇게 하려면 서울시 雇傭安定課나 서울시議會의 승인을 받아야 할 사안입니다.

현재로서는 행정재산으로, 법정재산으로 변경하는 문제도 있고, 또 그런 프로젝트가 만만치를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또 밀어 주신다면 雇傭安定課하고 협의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볼 좋은 자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에게 공단에서도 서울시내 금천지역이나 구로지역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건의도 사실은 몇 번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힘만으로는 당장에 하겠다 안하겠다 이 자리에서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시립직업전문학교이기 때문에 우리로 봐서는 희망사항이 될지언정 여기에서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그때 당시에는 허허벌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서도 그런 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黃好淳 委員; 그래서 서울시에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타 도에 있고, 또 아까 가장 필요한 지역 지금 공단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서울시 공단 이것이 60만 평입니다.

그리고 많은 공단이 지금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단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들을 교육을 시켜서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외부에서 교육을 위탁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공단도 사실상 산자부에서 국가관리공단에서 서울시로 가져와야 되고, 또 그런 차원에서 우리 엘림직업학교를 경기도에 있는 것을 서울로, 지금 시흥동에 전문대학을 학교부지가 6만평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돈 가지면 그것 사고도 남습니다. 그것 산이고 그린벨트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전향적으로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우리 의회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지적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또 관계기관에 협의를 해서 점진적으로 그런 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네, 좋은 부탁으로 알고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용역을 주어야 되고.....

○黃好淳 委員;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누가 봐도 그것은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경기도 군포에 있는 것보다 공단 가까운 금천에 있는 것이, 더군다나 부지도 있는데 시설 팔아서 여기 가져오면 충분히 그 이상의 좋은 시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서울이 특별한 예산 안 가져도.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협력이 되면 충분하다 나는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네,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黃好淳 委員; 별도로 그것은 분명히 다음 위원회 회의때 다시 한 번 모실 테니까 그때까지 검토를 하시도록 하십시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감사합니다.

○黃好淳 委員; 이상입니다.

○委員長代理 張夏雲; 수고하셨습니다.

엘림 교장은 雇傭安定課長하고 협의해서 우선 필요성의 문제를 떠나서 현실적 행정적으로 가능한가부터 해서 보고서를 黃好淳 委員님께 갖다 드리세요.

그 다음에 金東郁 委員님.

○金東郁 委員; 金東郁 委員입니다.

존경하는 梁敬淑 同僚委員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로 우수한 학생들을 키워내는 학교에서 직원들이나 임원들 선생님들한테 80%의 예산을 활용하고 학생들한테는 20% 정도밖에 가지 않는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봐야 할 것 같아요.

이런 학교가 어렵고 힘든 청소년들을 좋은 교육과정을 통

해서 올바른 지식을 배우게 해 이 사회에 진출시켜 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취지인 것 같아요.

이런 취지에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계학교에 하나 여쭙보고 싶은데 아까 군대를 갔다 오면 다시 취업을 알선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다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2년 여 동안 공백기간이 있는데 과연 군대 갔다 와서 다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관리라든지 장치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을 단지 질문에 넘기기 위해서 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그런 제도가 있으면 어떤 제도를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고 싶고요. 답변을 지금 바로 해 주세요.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저희가 지금 기능인력은행이라고 해서 학교 내에 졸업생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입력을 시켜서 각 기업체로부터 구직요청도 받고, 또한 저희들이 개발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대를 하게 되면 특히 야간은 좀 힘들지만 주간학생들은 졸업생들끼리 모임이 있습니다.

동창회식으로 있어서 모여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고 해서 군대 갔다 오신 분도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도 본인이 원한다면 저희들하고 접촉을 해서 알선을 해 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金東郁 委員; 본인이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본인이 원할 만큼 직업학교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서로의 자료나 교환을 하고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짚어볼 문제일 것 같고요.

약정업체를 선정해서 주문훈련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계학교에 하는 것은 아닌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권장할만한 사업인 것 같고, 네 학교 전체적으로 여쭙보고 싶은 것이 지금 현재 99년도 취업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몇 명에 몇 %가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우선, 상계직업전문학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주·야간 해서 960명을 선발을 했습니다. 야간은.....

○金東郁 委員; 간단하게 몇 명에 몇 % 취업했고 몇 명인가.....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52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전체 수료생의 6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군대 가고 한 사람들을 빼고 얘기한 것입니다.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한남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99년도 교육생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85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538명이 취업을 했기 때문에 숫자상으로는 63%의 취업률입니다.

지금 상계에서도 말씀드린 대로 취업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이 209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 24%쯤 됩니다. 그 사람을 제외하게 되면 646명을 기준했을 때 538명에 취업률은 83.3%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金東郁 委員; 몇 명이 취업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요?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지금 취업 비대상 인원이 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209명입니다. 저희들 보고자료 17쪽에 있습니다.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엘림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료인원은 251명이고요, 대상인원은 234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자기들이 형편이 좋아져서 또 장래를 생각해서 진학하는 학생, 또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군에 입대하는 인원을 포함하면 93%가 되겠습니다.

○金東郁 委員; 끝으로.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서울종합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고자료 6쪽에 나와 있습니다. 898명 중에 취업대상 461명, 그리고 취업인원 413명으로 89.6%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비취업 대상으로는 재직, 입대, 진학, 자영, 유학 등을 비취업으로 제외를 시켰기 때문에 취업대상은 다소 적은 감이 있습니다만 취업대상 대비 취업률은 89.6%입니다.

○金東郁 委員; 제가 이것을 여쭙어본 이유는 다른 뜻이 있어서 여쭙어본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순수취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지요? 전체취업이 있고 순수취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전체취업을 말씀하신 분이 있고 순수취업을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자칫 잘못하다가는 우리 학교는 마치 93%가 취업을 하는 아주 우수학교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다른 교육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지 않는,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만 가게 되는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순수취업은 몇 %이고 전체취업은 몇 %이다라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됩니다, 우리 학교가 취업률이 높다고 자칫 왜곡되지 않게.

또 하나 그렇다라면 군대를 가고 진학을 하는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학을 가는 경우인데 이런 학생들을 시비를 들여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던 말이에요.

왜 이런 사람들을 선정해가지고, 더 어려운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교육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왜 이런 사람들을 교육을 시켜 가지고 군대를 가게 하고, 군대 2년 동안 가 있으면서 이 기술을 제대로 전수를 못 받아요. 자기 것을 못 만듭니다.

2년이라는 공백, 그 기술을 습득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까? 군대에서 그 기술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뽑는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교육대상에서 반드시 빼야 됩니다.

그래야지 올바른 교육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우리 혈세인 시비로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지적하고 싶고,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귀 학교에서 어떻게 취업을 알선하고 있고, 또 하나는 취업을 했을 때 어떤 사람들이 했으며, 어디에 가서 몇 개월 동안 어떻게 잘 근무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99년도 것만이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즉 말씀드리는 이유는 참 소중한 우리의 돈 같아요, 어려운 시기에. 그래서 이런 비용으로 올바른 인재를 길러내는데 자칫 교육자인 사람들이, 운영하는 분들이 실수를 범해서 정말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 부분이고, 하나 제가 확인하는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혹시 귀 학교 중에서 종교적인 행사를 하는 학교가 있습니까? 일례로 일요일에 예배를 본다든가 일요일에 미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불교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있는 학교가 혹시 있다면,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들에 대해서 따로 생각하지 말아 주십시오. 왜냐 하면 교육은 순수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는 사람은 부담 없이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기술을 자기가 배우고 싶은 만큼 충실히 배워야 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가 종교를 강요함으로 인해서 첫번째 목적인 기술습득이라든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날 우려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은 제가 종교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거든요. 지금은 폐지됐습니다. 왜 폐지됐느냐,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종교는 자유스러워야 되고, 그리고 교육은 반드시 올바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앞으로 반드시 폐지해 주십시오. 나중에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또한 문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張夏雲 幹事, 鄭韓植 委員長과 司會交代)

○委員長 鄭韓植;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梁敬淑 委員님.

○梁敬淑 委員; 학교별로 묻겠습니다.

지금 서울종합은 교직원 모집을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교직원 모집 말씀입니까?

○梁敬淑 委員; 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일간지에 공개공고를 내고

공개모집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어느 신문에 내지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대한매일신문에 작년의 경우 두 번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梁敬淑 委員; 학생은 어떤 방식으로 모집합니까?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학생은 서울시 雇傭安定課에서 제시하는 기준대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 1일 이전에 서울시민으로 되어 있는 분을 상대로 해서 정해진 기준에 따른 면접점수를 부여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러니까 학생모집 공고는 어디에다가 해요?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거의 매체란 매체는 다 하고 있습니다. 각종 일간지,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는 KBS방송국 아침뉴스 방송 끝에 정보를 드립니다라는 특별코너에 저희 학교가 약 7분 정도 나간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그리고 생활정보지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기타 동사무소에 직접 저희 학교 홍보물을 비치하고, 또 지하철역에 역시 포스터를 붙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구하고, 또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기대감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갈수록 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부가 인원이 급격히 감소함으로 해서 저희들이 신입생을 모집하는데도 대단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서울시 전역을 대상으로 해서 한다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홍보에 큰 한계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방송에 한 번 나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고, 그래서 어떤 아는 인맥을 통해서 겨우 한 번 정도

나갈 수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도 너무 힘들고.

또 서울시립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를 들면 지하철역이라든지 이런 곳에 상시홍보 이런 부분은 서울시 차원에서 종합홍보 차원으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 4개 학교의 공통사항입니다.

사실 홍보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고 저희들이 발로 뛰는 것은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너무 많고, 올해 같은 경우 저희 학교뿐 아니라 감히 추측컨대 정시모집에는 거의 다 미달된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추가모집에 더 큰 예산 아닌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재단에서 저희 같은 경우 400만원이 출연되고 저희 자체 교사들의 친목단체인 상조회에서 300만원을 선뜻 기탁을 해 주고, 기타 150만원 해서 사실 1년 예산 800만원 중에 절반인 약 450만원이 추가모집에, 본예산은 다 1기 모집에 쓰고 추가모집에 그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사실 홍보예산을 집행하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고 싶은 것은 서울시 공공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서울시의 이름으로 종합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梁敬淑 委員;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감사장이네요. 건의하는 데가 아니네요. 서울시에 그런 건의 했어요? 雇傭安定課에 건의할 사안을 왜 의회 감사장에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관련부서에 먼저 건의를 하고 시정이 되게끔 조치를 취하고 의회에 얘기를 하든지 말든지 건의문으로 내야지 감사장에 와서 그런 건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감사받는 자세가 안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직업학교가 학생을 모집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많은 예산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면 이 학교 자체의 폐지가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검토돼야 돼요.

올 학생들을 모집하는데 그 많은 예산과 그 많은 인력을 동원할 정도라면 이 학교를 과연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느냐를 근본적으로 검토할 시기라고 봅니다.

물론, 이 학교들에 대해서 얘기할 사안은 아니에요. 서울시하고 이 문제도 긴밀하게 의논하겠습니다만, 아무튼 앞으로 그런 점들도 같이 감안해서 서울시에 조사를 촉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남 같은 경우는 어떤 방식으로 모집을 합니까, 학생들을?

○漢南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아까 신입생을 뽑는 조건은 4개 시립학교가 전부 다 공통적으로 같습니다.

홍보하는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市에서 종합일괄해서 해 나가고, 저희들이 몸으로 뛰는 부분들은 자료 12쪽에 있습니다만 포스터를 만든다든지 팸플릿을 만든다든지.....

○梁敬淑 委員;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일간지나 동사무소에 배치를 했습니까?

○漢南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네, 인터넷도 이용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늘 미달이라 이것이지요?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일간지 광고도 돈을 몇 백만원씩 들여서 하는데 학생들이 안 온다 이것 아닙니까?

모집이 안 돼서 추가모집을 해야 겨우 학생이 차고 중간에 중도 탈락하는 경우는 20% 가까이 되네요,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러면 중도탈락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서울시에 돌려줍니까?

○漢南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 중도 탈락하게 되면 불용액으

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1인당으로 배분되는 식비 같은 것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안 쓰게 되니까 예산에서 자동으로 반납이 되고 있습니다.

○梁敬淑 委員; 알았습니다.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가 99년 이후에 현재까지 교육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59건 중에 41건이 수의계약입니다.

그리고 컴퓨터 부품을 사는 2억 5,000만원도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계약담당자하고 계약서, 또 계약방식, 왜 이러한 컴퓨터부품을 선택하게 됐는지, 입찰방식하고 공고, 공고문 사본, 응찰가, 낙찰예정가, 낙찰가 다 자료로 제출하시고, 이 컴퓨터 부품업체에 대한 기본자료도 제출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디에 소재하고 있는 회사고 그 회사에서 구입한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또 수의계약을 왜 이렇게 대부분 해야 되는지, 서울종합만이 아니라 지금 대부분의 학교가 다 수의계약으로 장비들을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로 다 제출하시고, 앞으로 아주 소액인 경우에, 또 기종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 가능하면 공개경쟁방식을 통해서 부품이 든 기자재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홍보하는 방식이 자구책이든 의회에서의 지적으로 인한 개선이든 간에 상당히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심각한 그런 문제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홍보방식이나 학생 모집방법을 다양하게 강구하고 있고 돈도 예산도 상당히 많이 투자하고 있는데도 학생들이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 또 그렇게 오지도 않을 학생 모집을 위해서 돈을 100억씩 서울시가 매년 투자해야 되는

가, 차라리 그러한 시설들을 그 지역 일대의 사회복지시설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주머니들, 집에서 노는 사람 또는 군대 가기 전에 몇 개월 내지 1년을 공짜로 교육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시민들이 투자해야 되고 내놔야 되는가에 대한 상당한 회의가 들기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조사를 시키겠지만 여러분들도 도덕적이고 양심적으로 학교운영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 각 학교가 대안을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전환하고 어떤 방식으로 학교가 다시 태어났으면 좋으나 하는 판단들을 학교에만 요구하기에는 무리인 점이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하고 앞으로 학교기관하고 의회가 같이 공통적으로 깊이 검토해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비를 미리부터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남직업전문학교는 재학생이 22세 이상의 성인이 66%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서울시가 본래의 취지대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청소년들을 직업교육 시켜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직업전문학교예요.

직업을 갖게 해 주는 노력을 하는 취지인데 성인들한테 그냥 취미 내지는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는 기관으로 전략을 한다면 차라리 그 돈을 민간 사설학원에 위탁비용을 주고 어려운 사람들은 가서 배우게 하고 그 사설학원들한테 돈을 주는 것이 낫지 않은가 이런 판단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한남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문대

학교 이상 졸업자가 128명이나 돼요.

전체 학생의 22%가 대학 졸업하고 전문대를 졸업해서 다시 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무상직업교육을 받으러 오는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이것들을 시민들이 제대로 깊이까지 알게 된다고 한다면 이것 납득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주부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가 여자직업전문학교이다 보니까 고학력 주부들 취미나 그것을 위해서 서민들의 혈세를 몇 십억씩 각 학교별로 쏟아부어야 되는가, 雇傭安定課長, 똑바로 들으세요.

대안을 충분히 가지고 검토하시고, 앞으로 서울시 감사실을 통해서 직업학교에 대한 자체감사를 다 최단시일내에 전체 시키도록 조치하시고, 또 직업학교의 전망이나 방향에 대해서 雇傭安定課 차원에서 시정개발연구원이든 전문용역업체에 용역을 주든 간에 앞으로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연구 검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대안을 내시고, 지금 雇傭安定課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업무지도 나간다고 해봐야 깊이까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학교도 엉망이고 지금 예산도 투명하지도 않고 계약방법도 이것이 교육기관이냐 할 정도로 문제 투성이입니다.

어떤 문제를 들어갈 때 문제가 없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각 학교별로 특정한 학교만이 아니라. 교원관리도 그렇고 교원 모집해서 하는 것부터 그렇고, 교원의 수준도 그렇고, 학생구성 인력현황도 그렇고, 학생모집 방식도 그렇고, 다니는 학생의 현황도 그렇고 문제 없는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雇傭安定課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즉각적인 조사에 들어가고 감사실에도 감사를 시키고 해서 앞으로 직업

학교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한다면 용도 자체를 다른 식으로 서울시 전체 차원에서 전환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鄭韓植;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각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을 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들이 질의한 내용 중 서면답변 하기로 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자료를 작성하여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4개 직업전문학교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6時 36分 監查終了)

○出席監查委員

鄭韓植 張夏雲 李亮漢 郭順英
金東郁 梁敬淑 吳世根 李容富
鄭圭鎮 鄭鉉均 黃好淳 明英鎬
趙相勳

○專門委員

金東秀

○被監查機關參席者

서울綜合職業專門學校長 尹錫列
上溪職業專門學校長 高雄一
엘림職業專門學校長 徐恒植

訓練部長 韓喆洙
漢南女子職業專門學校長 金武男